

5할 승률 버텨야 '가을 야구' 희망이 보인다

KIA, 3위 SSG와 -1.5게임차...8위 삼성과 +1.5게임차 '혼전'

최근 10년 통계 마지노선은 70승, 남은 32경기 최소 16승해야 관건은 9월 안방 14경기 승패...불안한 불펜 단속 급선무 과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치열한 중위권 싸움 한 가운데에 서 있다.

20일 기준, 선두 LG가 70승 고지를 밟으며 정규리그 우승에 가장 근접한 가운데 KIA는 54승 5패 4무(승률 0.500)로 공동 5위다.

현실적인 목표는 15경기 차에 불과한 3위권 진입이다. 동시에 5위 사수리는 마지노선 싸움도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정규시즌 잔여 32경기에서 최소 16승(승률 5할)은 확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144경기 체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10시즌 동안 5위 승수 분포가 이를 뒷받침한다.

10년간 5위 승수는 대부분 70~75승 구간(8차례)에 몰려 있었다.

예외적으로 2015년엔 60승으로 턱걸이했고, 2020년에는 80승에도 불구하고 5위에 머무는 이례적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마지노선은 70승 전후, 안정권은 72승 이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게다가 올 시즌은 중위권(3~8위)이 최대 3경기 차로 뒤여져 있다. 막판까지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면, 가을야구 마지노선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KIA의 가을야구는 70승 고지를 밟느냐에 달려 있다.

73승 이상을 쌓는다면 단순한 5위 수성을 넘어 3위도 바라볼 수 있다. 반대로 70승 미만이면 5할 5승 탈락 가능성이 커지고, 연패 한 번이면 순위가 급락할 위험도 크다.

희망의 근거는 흠이다. KIA는 올 시즌 광주에서 30승 2무 2패(승률.588)로 강세를 보였다.

남은 일정 32경기 중 18경기가 홈이고, 특히 9월 홈 14경기는 사실상 운명의 달이다.

타선은 뜨겁다.

최근 10경기에서 팀 타율 .285, OPS .817, 홈런 19개로 리그 상위권이다. 반면 불펜은 발목을 잡



지난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KIA 선수단이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자축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고 있다. 최근 10경기 ERA 5.97, 시즌 전체 ERA 5.11로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통산 12번째 정상에 올랐던 KIA지만, 올해는 다시 생존 싸움 한복판이다.

정상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가을야구 무대는 여전히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결과는 그라운드 위에서 판가름 난다. 방법은 분명하다.

불펜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 가을야구 막차, 그리고 3위 추격의 열쇠까지 모두 KIA 스스로가 쥐고 있다.

/주홍철 기자

'더 강해진 원팀'...홈강원전 '도약 기회로'

광주FC, 23일 강원과 맞대결

코리아컵 승리 자신감, 반등 원동력 치열한 중위권 싸움, 실력으로 압도 캡틴 이강현 100경기 출장 기념식도



상승세를 탄 광주FC가 상위권 도약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 2025 27라운드 강원과 홈경기를 갖는다.

현재 광주는 9승 8무 9패(승점 35),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다.

5위 서울FC(승점 37), 7위 울산(승점 34), 8위 강원(승점 32), 9위 수원FC(승점 31)를 비롯해 강등권인 10위 제주(승점 30)까지 살얼음판 중위권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는 광주로서는 이번 맞대결이 안정적인 상위권 진입을 위한 기회다.

광주의 최근 분위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하나시티즌을 2-0으로 완파한 데 이어, 20일 부천FC1905와의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에서도 2-0 승리를 거두며 2경기 연속 무실점 완승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사니 이적 파동'이라는 악재를 딛고 더 단단해진 원팀으로 분위기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최근 2경기 연속 안방에서 승리를 챙긴 광주는 이번 강원전까지 승리하면 공식전 홈 3연승을 기록한다.



지난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FC1905와의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에서 신재필을 터뜨린 정지훈이 팀 동료 헤이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공-수 짜임새 있는 경기 과정도 완벽했다.

전방에선 광주 특유의 공격 축구 기조를 유지했고, 후방에선 안정감 있는 퍼포먼스를 뽑냈다. 헤이스가 2경기 3골을 넣으며 공격을 이끌고, 오후성과 정지훈이 좌우 측면에서 활약을 불어넣으며 뛰어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영입된 외국인 공격수 프리드슨까지 적응력을 높이며 팬들의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수비 라인에는 핵심 센터백 변준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는 변수가 있지만, 광주는 시즌 초반부터 센터백 포지션에 조성권, 진시우, 민상기 등을 번갈아 내세우고도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선수단 역시 팀으로 뭉쳐 변준수의 공백을 메우고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강원전 준비엔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한편, 광주는 이번 강원전에서 캡틴 이강현의 100경기 기념 시상식을 진행하며 '골스튜디오 브랜딩데이'를 진행해 찾아오는 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박희중 기자

'2028 전국체전 광주 유치' 시동

광주시체육회 등 유관기관 실무자 TF팀 구성, 본격 유치전 돌입

광주시체육회가 2028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위해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제44회 월요대화 '전국체전 유치, 광주 체육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 전국체전은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고,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에너지체육회 등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데 기인해 유치신청TF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지난 6월 대한체육회 공고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광주시장 보증서 및 광주시의회 의장 협약서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체육회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 현장실



사와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개최지가 선정된다.

이번 TF팀은 광주시체육회 체육운영본부장을 팀장으로, 체육진흥부장·시설부장, 광주시 체육진흥과 체육기획팀장·장애인생활체육팀장·시설조성팀장, 광주시교육청 과장·장학사, 장애인체육회 부장·팀장 등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각 분야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광주만의 차별화된 유치신청서를 완성할 것"이라며 "안락한 준비를 통해 21년 만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빛고을육상·학교체육발전 '힘모자'

광주시육상연맹·구구치과 업무협약

광주시육상연맹(회장 김민주)은 21일 구구치과(원장 김태승)와 지역 육상 및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구치과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내 육상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학교체육 기반 구축, 그리고 유망 선수 육성 및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구구치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매년 300만원씩 총 1천2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첫째 분 후원금 300만원은 협약 체결 전 이미 입금 완료 상태다.

후원금은 광주 지역 학교육상 활성화, 청소년 선수 훈련 지원, 연맹 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광주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치료 진료를 공급해온 구구치과 김태승 원장은 김민주 회장의 광주일고 동문으로 광주육상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광주 육상의 미래는 학교체육 현장에 있다"며 "김태승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오른쪽)과 김태승 구구치과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육상연맹 제공>

원장의 진심 어린 후원과 결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이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 체육단체 간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신임 경영본부장에 이현 전 남구 부구청장 선임

광주FC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그동안 공백이었던 경영본부장에 이현(사진) 전 광주남구 부구청장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는 축구 전문가가 아닌 행정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구단 운영의 '재정안정'과 '조직운영'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임 이현 본부장은 다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 정책 기획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경험을 토대로 광주FC가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다.

신임 이현 본부장은 "광주FC는 광주시민 모두의 구단이자 자랑이다. 축구의 전문성은 감독과 선수단, 기술위원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강화해 나가고, 저는 행정가로써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겠다"며 "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광주FC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FC는 재정건전화 위반과 부채 등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K리그에서 꾸준한 실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어, 이번 이현 본부장 선임이 계기로 행정 전문성과 축구 현장의 전문성을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희중 기자